

여야, '덧발' TK·호남 이변 없다

국힘, TK 25곳 중 24곳 '우세' 판단 민주, 호남 28곳 모두 '안정권' 분석 전문가들 "야권, 더 많은 의석"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각각 '덧발'으로 여기는 호남과 대구·경북(TK)의 의석을 큰 이변 없이 지킬 것으로 예상했다. 3일 양당의 판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경우 광주 지역구 8곳과 전남·북 20곳 등 호남 28곳을 모두 석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선거 초반 민주당의 공천 잡음으로 호남 민심이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관심을 끌었던 새로운미래 이낙연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광주 광산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육중 출마한 광주 서갑에 서도 민주당은 각각 민형배·조인철 후보

가안정적인 우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남의 이정현(순천·광양·곡성·구례을) 후보와 전북의 정운천(전주을) 후보가 각각 민주당의 권항엽·이성운 후보를 상대로 지역구 입성을 노리고 있지만 민주당은 2곳 모두 무난히 수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선거구 25곳 중 집적인 경북 경산을 제외한 24곳을 우세 지역으로 평가했다. 경북 경산은 17·20대 총선을 내리 이긴 옛 진박(진박근혜)계 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사무소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이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 초반엔 최 후보가 비교적 큰 격차로 우세였지만 조지연 후보의 지지세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이라며 "이 지역은 집전 선거구로 보고 총력으로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강원과 제주에서는 양 당의 전망이 엇갈리는 지역구들이 나왔다. 강원(8곳)의 경우 국민의힘은 강릉,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5곳을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했다.

민중당은 이들 중 4곳은 자당이 열세라고 봤지만 강릉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다. 원주갑은 양당이 각각 자당 쪽으로 경합우세라고 판단했다. 원주을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민의힘은 경합지로, 민주당은 경합우세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제주시 갑·을 2곳은 열세로, 서귀포는 백중열세로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제주지역 3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자평했다. 선거 전문가들은 대체로 민주당 등 야권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주당의 여유 있는 과반 승리를 점치며 "정권심판론에는 인물론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여당이) 야당을 충분히 압도할 만한 인물을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180석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국민의힘은 100석 이하, 민주당은 180석에서 최대 190석도 가능할 것 같다"고 예측하며 그 원인 중 하나를 여당 내 자중지란으로 꼽았다. 민주당 의석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 진보 성향의 야권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의석을 합하면 100석 안팎까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강훈 전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조심스럽지만, 국민의힘은 최악의 경우 101-106석으로 본다"며 "그러면 범야권이 최하 188석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빗속 선거 운동 비가 내린 3일 오후 광주 북구 본촌동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조국혁신당, '균형발전·지방소멸' 공약 발표

'균특회계' 2배 증액...균형발전 펀드 조성도

조국혁신당은 3일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호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의 균형발전·지방소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며 "시민공론화위원회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참여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돼 왔다"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균특회계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

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김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전문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균형발전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펀드는 지역중소기업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창업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에 활용될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에 '균형발전인제예산'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각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등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수도권 與 13곳·민주 78곳 우세 전망

'한강 벨트' 품은 서울, 與 10곳·민주 32곳 '승기 판단' 경기 민주 우세 33곳...인천 與 1곳·민주 13곳 우세 분석

여야는 4·10 총선의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에 걸린 122개의 의석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다. 수도권 의석수는 전체 지역구(254개)의 절반에 육박하는 데다 선거 때마다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풍향계' 역할을 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수도권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일 거대 양당의 각 시도당이 자체 파악한 서울·경기·인천 선거 판세에 따르면 선거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지역은 국민의힘이 13곳(10.7%), 더불어민주당은 78곳(63.9%)으로 각각 나타났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백중세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은 24곳(19.7%)을, 민주당은 35곳(28.7%)을 꼽았다. 선거 민심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대 총선보다 한 석 줄어든 서울 48개 지역구 가운데 10곳을 승리 가능성이 있는 우세권으로 판단했다. 지난 총선 때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강 벨트' 핵심 지역들을 최대 접전지역으로 꼽는다. 용산(권영세), 마포갑(조준호), 중·성동을(이

해훈)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에서 모두 32곳에서 우세(26곳)하거나 경합권에서 우세한 흐름(6곳)이라고 보고 있다. 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중랑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강북 벨트', 관악·강서·구로·금천 등 '서남권 벨트'는 이번에도 굳건하다고 전망한다. 여기에 서대문을(김영호), 양천을(이용선)에 더해 한강 벨트 일부인 마포을(정창래), 광진갑(이정현), 광진을(고민정), 강동을(이해식) 등을 우세 지로 분류했다. 종로(곽상언), 동대문갑(안규백)도 경합 우세권으로 판단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한강 벨트를 최대 접전지로 여긴다. 용산(강태웅), 동작갑(김병기), 동작을(류삼영), 영등포갑(채현일), 영등포을(김민석), 양천갑(황희), 강동갑(진선미), 중성동을(박성준) 등이 백중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공역시·도 가운데 의석수가 60석으로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서의 여야 대결도 뜨겁다. 국민의힘이 경기 60개 지역구 중 확실한 승기를 쥔 우세 지역으로 평가한 곳은 1곳도 없었다. 대신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던 동두천·

연천·양주을(김성원)과 여주·양평(김선교) 등 2곳만을 '경합우세'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보여온 경기도에서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세 지역은 전체 의석의 절반을 웃도는 33곳, 경합지는 22곳으로 자체 분석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 남양주, 용인 등의 판세를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핵심 격전지인 반도체 벨트에선 수원(5개)과 화성(4개)의 경우 '수성'을 전망하고 있으나 평택은 다소 혼전세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경기도의 '헬지인' 분당갑(이광재), 분당을(김병욱), 하남갑(추미애), 의정부갑(박지혜) 등도 경합지로 보고 있다. 14석의 의석이 걸린 인천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자당이 현역 의원인 중구·강화·옹진(배준영) 1곳만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경합지로 판단한 중구·강화·옹진(조택상)을 뺀 13개 지역이 우세하거나 경합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명품 대전'으로 관심을 끄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계양구에 대해선 수성하는 입장인 민주당은 우세지로 평가하고 있고, 원희룡 후보를 앞세워 공약에 나선 국민의힘은 경합 열세인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프리즘

문금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3일 전남도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과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은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장대한 사항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국가 균형발전 실현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거주

주민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문 후보는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생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부터 뒷받침돼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주철현 "여순사건 망언 박정숙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후보(여수갑)는 3일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는 여순사건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지난 2일 오후 3시 KBS순천방송국 공개홀에서 진행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방안에 대한 답변 중 "여순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 불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게다가 주 후보가 토론 도중 박 후보

의 발언을 지적하자 박 후보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박정숙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여야 합의를 거쳐 재석 국회의원 23명 중 2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실정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수기자

강은미 "군공항 이전, 민관정협의체 공론화"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후보(광주 서구을)는 지난 2일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임원들과 정책담당회를 가졌다. 군공항 이전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얽혀있고 소음 등 피해도 있어 지역에 오래된 난제로 꼽히고 있다. 강 후보는 "전남지사, 광주시장, 무안군수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지부진한 군공항 문제 해

결을 위해서는 광주에 다당제 민주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군공항 이전 협의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평화 군축 노력이 필요하고 무인화되는 무기 체계 추세에 맞게 군공항 통제함 등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정준호,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정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후보(광주 북구갑)는 3일 '전남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안 사항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보편적 제공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관련 아동복지법과 제도 개선 ▲초등 아동 돌봄체계 통합과 지원 강화 ▲다문화

및 이주 배경 아동·경제선 및 장애 아동·농어촌 아동 돌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의 실질적인 안식처와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동과 양육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 체계에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강 기자

이석형 선대위, 이개호 후보 맞고말

무소속 이석형 국회의원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 선대위는 3일 "전날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 및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석형 후보 측은 "이개호 후보는 세금을 체납한 내역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세금 체납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 후보를 고발·검박하는 삼류 정치를 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형 후보 측은 또 "후보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될 문제를 거짓말로 덮으려다 문제가 커지니 의문을 제기한 사람을 고발하고 세무조사 의뢰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이것이 본인이 말하는 정치인의 품격인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시원 기자

광산 공인중개사협회, 민형배 지지 선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산지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후보(광주 광산을)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선언에는 최은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산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최은선 지회장은 "민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공인중개사가 접하고 있는 현안을 늘 관심을 가져왔다"며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미뤄 볼 때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전환시

킬 적임자라는 확신이 든다"고 지지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민 후보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력은 주권자인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진짜 정치"라며 "시민들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듣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 시책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